

‘2026년 하반기 펀드시장 및 상품전략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Part 1. 2026년 상반기 운용업계 및 펀드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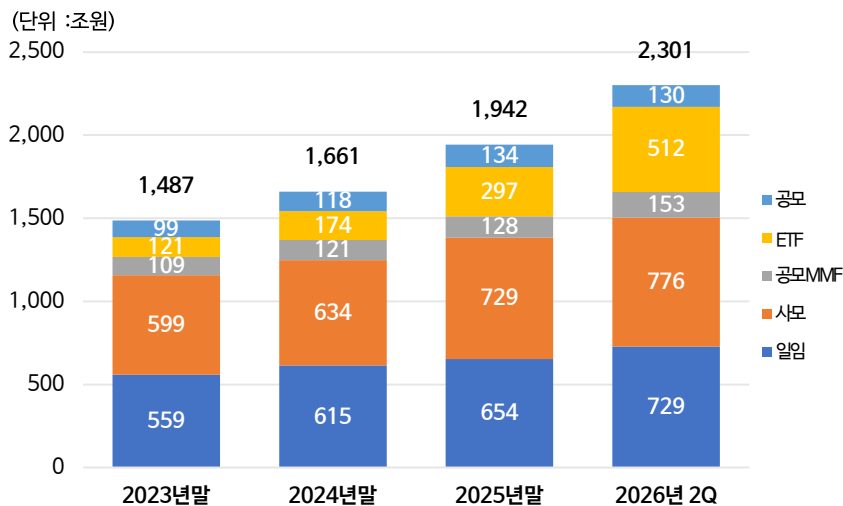


1-1. 2026년 자산운용업계 동향

▶ '26년 상반기, 자산운용업계 수탁고는 2,301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연초대비 +358조원,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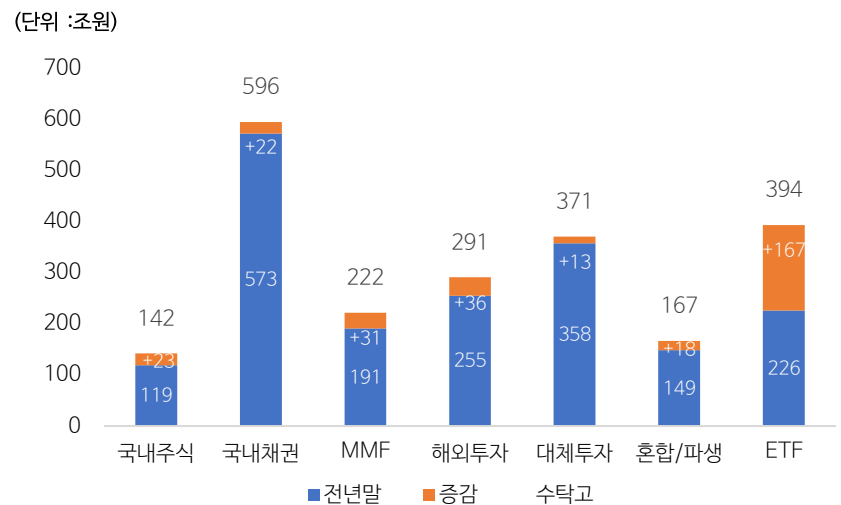
- (건조한 성장) 증시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신규 자금 유입이 함께 반영되며 수탁고 증가
- (ETF 주도 성장) ETF 순자산이 +215.3조(+72.4%) 급증하며 시장 증가분의 60%를 차지
- (공모 수요 위축) ETF 제외 공모는 +8.2% 성장에 그쳐, 성장 주도권이 개인과 ETF로 이동

자산운용 업계 수탁고 추이



* 자료 : 제로인 펀드평가, 2026.06.30 기준

2026년 상반기 유형별 수탁고 증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26.06.30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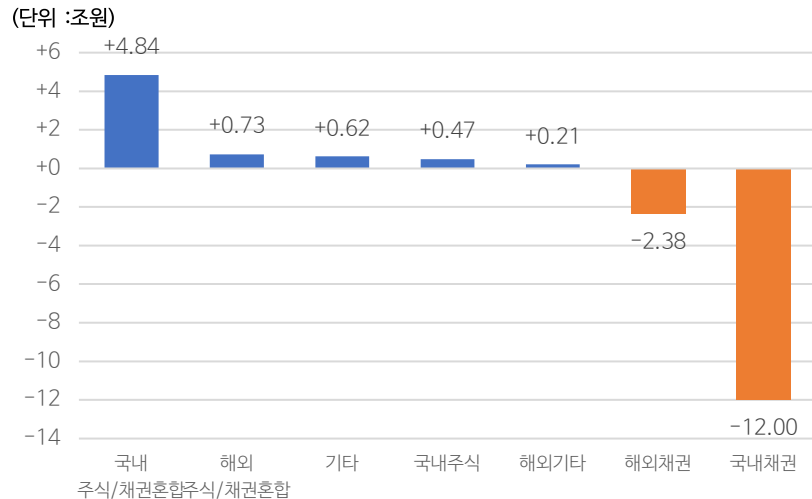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2. 2026년 공모 시장동향

▶ 성격이 뚜렷한 상품만 살아남은 공모 시장, 채권·해외는 동반 부진

- (제한적 유입) 공모 유입은 단기 대기성 자금(MMF)과 연금 제도 기반 자금(TDF)에 집중
- (테마 상품 선별 유입) 반도체 채권혼합 · 사모투자재간접 등 뚜렷한 구조나 테마를 가진 상품에 자금 유입
- (채권형 부진) 금리 방향성 부담 속에 초단기채·미국장기채 등 채권형 전 구간에서 유출
- (해외 전반 유출) 중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에 대한 자금 유출 지속되며, 해외 주식과 채권이 함께 부진

2026년 상반기 공모펀드 유형별 순현금흐름 (MMF 제외)



* 자료 :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2026년 상반기 공모펀드 주요 유출입 상품

상품군	순현금흐름	순자산
MMF	+23.12	+155.64
TDF	+4.19	+33.15
사모투자재간접	+1.75	+4.14
자산배분 (OCIO, EMP 포함)	+1.60	+11.46
국내 반도체	+0.72	+3.35
해외 일반채권	-0.83	+2.43
중국주식	-1.12	+3.88
국내 초단기·파킹	-3.37	+11.54
국내 크레딧·하이일드	-3.62	+2.86
국내 일반채권	-1.93	+16.83

* 자료 :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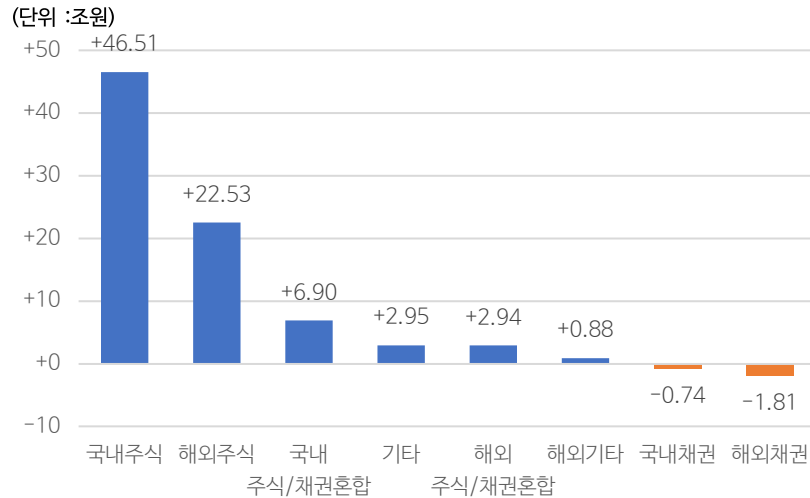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TF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자금은 신상품 출시 경쟁과 반도체 테마 집중 유입

- (신상품 시장 견인) 연초 이후 신규 상장 ETF 총 99개로 38조 유입 (전체 ETF 유입의 47%)
- (테마 편중 심화) 반도체(단일종목 레버리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 포함), 코스닥 중심으로 자금 유입 집중
- (국내 우위) 국내 증시 랠리가 자금을 끌어들이며 국내 주식형 ETF 유입이 해외 주식형의 두 배

2026년 상반기 ETF 유형별 순현금흐름



* 자료 :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2026년 상반기 ETF 주요 유입 상품

상품군	순현금흐름	순자산
국내 반도체·AI	+15.69	+47.34
미국 대표지수	+15.01	+71.93
단일종목 레버리지	+13.82	+16.07
코스닥	+6.88	+8.19
커버드콜·인컴	+6.61	+28.42
반도체 채권혼합	+6.28	+8.05
해외 우주항공	+3.65	+3.37
해외 반도체·AI	+3.62	+16.95
국내 AI 전력·인프라	+3.55	+7.49
인버스	+3.54	+3.30

* 자료 :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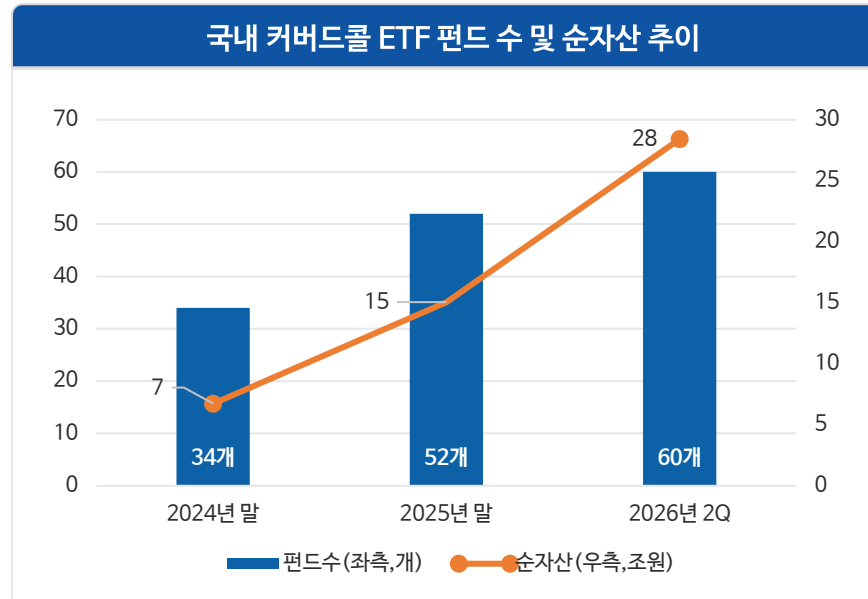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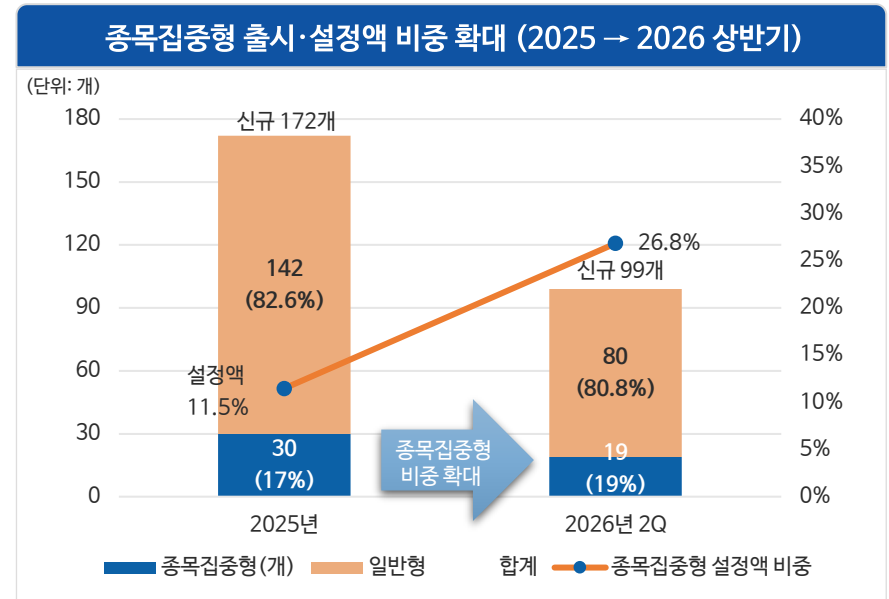
1-4. 2026년 ETF 상품별 추이

▶ 시장 양극화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종목집중·인컴·환노출형 ETF로 상품수요 및 자금 유입 확대

- (종목 집중형) 종목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TOP' 소수 대장주에 집중하는 '초압축 ETF'에 자금 집중
- (인컴형) 커버드콜 ETF로 자금 유입 지속,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인컴형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 (환노출) 원화 약세로 해외 ETF는 환노출형으로 자금이 집중



* 자료: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 자료: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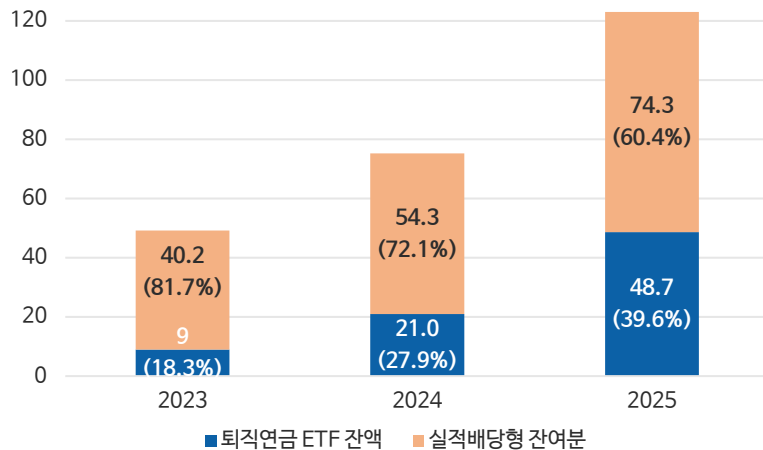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원으로 전년말(431.7조원) 대비 +69.7조원(+16.1%) 증가

- (IRP 활성화) DB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개인형 IRP가 매년 3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주도
- (ETF 급성장) 퇴직연금계좌 ETF 투자금액은 48.7조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 (국내 지수 ETF) 국내 증시 호황으로 KOSPI 지수 추종 ETF(패시브 기준)에 대한 투자 전년 대비 317.6% 증가
- (TDF 성장) 퇴직연금계좌 TDF 투자금액은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13.4조원) 50% 증가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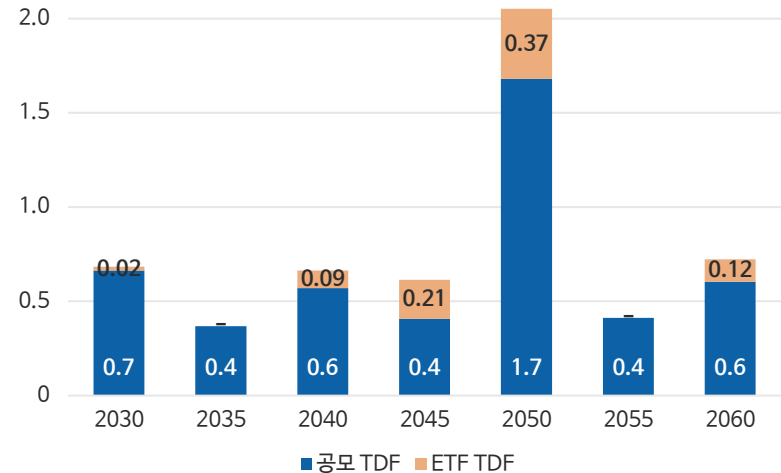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원, 2026년 5월 20일 “2025년 퇴직연금 투자백서”

2026년 상반기 TDF 타겟데이트별 순현금흐름

(단위 :조원)



* 자료: 펀드닥터, 2026.06.30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art 2. 2026년 하반기 국내외 자산시장 전망 (Hous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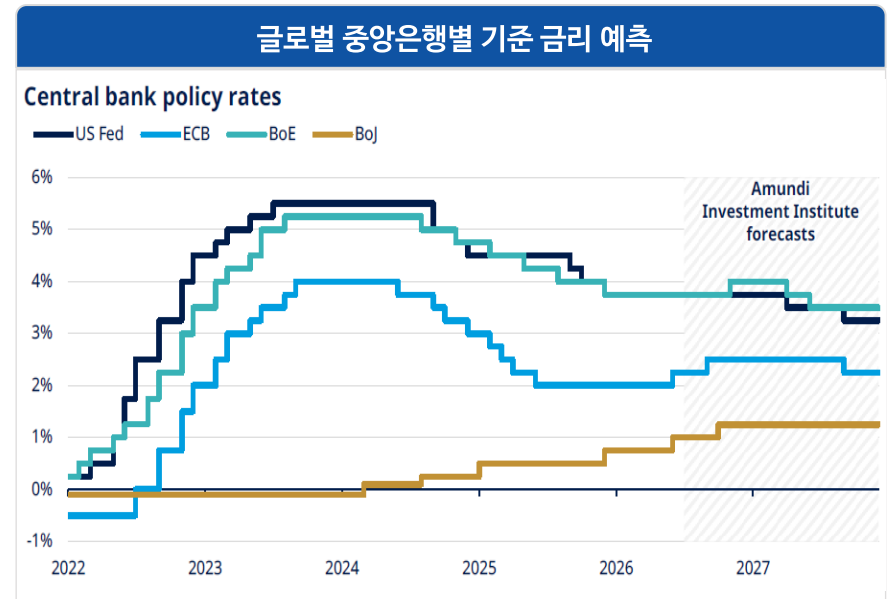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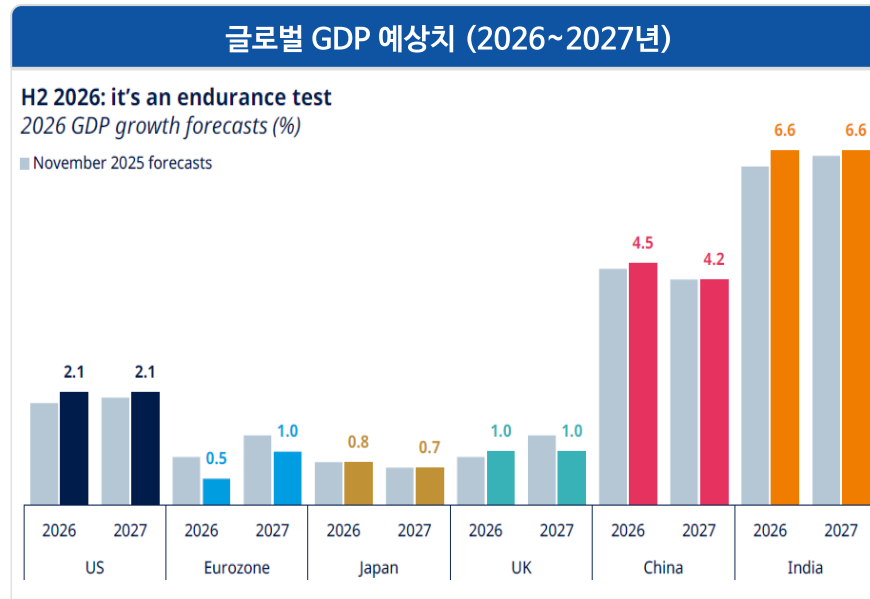


2-1. 글로벌 시장 환경 - Amundi 2026 Mid-Year Outlook

▶ 통화·재정 정책 여력 제약 속 경기 회복력 유지, AI 투자에 기반한 선별적 위험자산 선호 지속

- (통화정책)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 → 지역별 선별적 접근 필요
- (재정정책) 주요국 고부채로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나, **방위·에너지안보·전략산업 지출은 지속** → AI 인프라 등 정책 수혜 분야 부각
- (GDP성장률)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지역별로 불균등 전망** → 미국은 AI 투자가 성장을 지지하고, 유럽은 에너지 충격으로 회복 지연
- (성장요인) AI 투자는 기업이익과 민간투자를 지지하는 핵심 동력 → 투자기회는 **인프라·전력화·산업재·AI 활용 기업**으로 확산
- (위험요인) 중동 리스크,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높은 부채, AI 기대 실망 및 시장 집중도 리스크 상존

→ 변동성 국면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자산·지역·섹터를 폭넓게 분산 투자하며 헤지 전략 병행이 필요



* 자료 : 상기 전망 자료는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Mid-year Investment Outlook “Power of endurance”에서 발췌된 글로벌 Amundi운용의 하우스 전망입니다.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장전망 시나리오

DOWNSIDE SCENARIO

중동 리스크 재확대
및 AI 하드랜딩

25%

- 유가 급등 및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기대
-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 AI/기술주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 조정 유발 가능

시장영향

현금/미국 단기금리(+)
안전통화(+)

BASE SCENARIO

중동 갈등 안정화.
AI 도입 확산

60%

- 유가는 높은 수준이나 급등은 제한적
- 성장률은 일부 하향 조정되나 경기침체는 회피
- 중앙은행은 일부 인상 가능성 존재하나, 전면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은 예상하지 않음
- EPS 성장과 유동성이 위험자산을 지지
- 에너지·인플레이션 리스크

시장영향

위험자산, 유럽·아시아·
실물자산·원자재 선별적(+)

UPSIDE SCENARIO

중동 갈등 안정화,
AI 선순환

15%

- 호르무즈 해협 물류 정상화
- 에너지 가격 및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 중앙은행 완화 사이클 재개 가능성 확대
- 소비자 및 투자심리 회복
- AI 투자 선순환 지속으로 위험자산 선호 확대

시장영향

주식,크레딧(+),
경기민감주·에너지 수입국(+)

* 자료 : 상기 전망 자료는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Mid-year Investment Outlook “Power of endurance”에서 발췌된 글로벌 Amundi운용의 하우스 전망입니다.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국가별·지역별 자산시장 전망

주요 국가 및 지역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 중립 / 동일가중 확대 - 미국의 투자 및 이익 사이클이 시장 지지 예상 - 높은 밸류에이션과 집중도 리스크로 부담 지속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산업재·금융·유틸리티 업종 선호	(국채) 중립, (투자등급채권) 소폭 확대 (국채) 견조한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금리에 상승 압력 예상 (회사채) 에너지·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한 현금흐름 방어력이 우수
	- 선별적 확대 - 독일 재정 부양, EU의 전략적 국내 산업 집중, 상반기 조정 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시장 지지 예상 - 산업재·금융·유틸리티·헬스케어 등 투자 수혜 섹터 중심 선호	(국채) 단기물 확대, (투자등급채권) 확대 (국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있으나,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렴과 성장 둔화에 따라 단기물 수혜 예상 (회사채)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중기적 스프레드 축소 예상
	- 선별적 확대 - 아시아 EM은 기술주가 주요 이익 동력으로 전망 - 지정학적 변동성은 주요 리스크, 라틴아메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 선호	(HC) 선별적 확대, (LC) 최선호 (HC) 높은 캐리에 의해 지지 (LC) 현지통화채 금리 상승으로 6개월 전망 개선, 높은 캐리도 긍정적. 라틴아메리카 선호. EMEA 선별적 선호
	- 중립 - 침체된 내수와 견조한 수출 성장 사이에서 양분된 흐름 - 사회 전반의 기술 도입 확대 정책 고려, 테크·인터넷 섹터 선호	-
	- 소폭 확대 - 기업이익은 견조하고,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상태 - 기술주는 AI 비중이 낮아 현재 글로벌 기술 사이클의 수혜는 제한적	-

* 자료 : 상기 전망 자료는 Amundi Investment Institute 2026 Mid-year Investment Outlook “Power of endurance”에서 발췌된 글로벌 Amundi운용의 하우스 전망입니다.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4. 국내 주식 시장 전망(1)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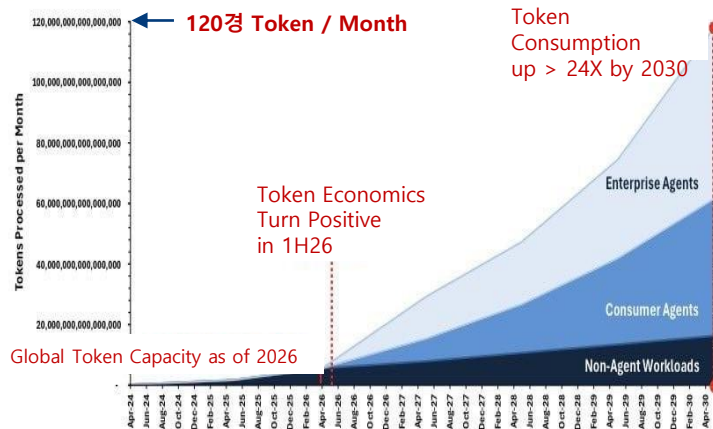
- ✓ 2026년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음.
- ✓ 1) 연준 의장의 교체와 하반기 중간선거, 2) AI Cycle 4년차이자 Physical AI의 원년, 3)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금리 상승 우려
- ✓ 1999년의 주도주 쏠림 현상과 2022년의 금리 상승 우려가 공존

AI 주도 지속 예상

- ✓ AI 4년차 cycle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2026년에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는 AI
- ✓ Agent AI 가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이어 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본격화 예상
- ✓ 기업과 개인이 소비하는 토큰 수요 급증 예상되며 토큰 자체가 매출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
- ✓ AI 모멘텀을 향유하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위험을 경계하는 시각도 견지하여야 함

기업과 개인의 토큰 소비 급증 : 2030 토큰 수요 24배

Exhibit 8: By 2030, we estimate consumer and enterprise agents could push token consumption 24X above today's estimated global capacity.



Source: Data compiled by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 자료 : Goldman Sachs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젠슨황의 Hyperscale Capex 예측 : 2030 연 4조 달러 투자필요

Hyperscale CapEx Spending For 2026, 2027, 2028 Consensus Estimates and Huang's prediction

Amount is in billions

AMZN GOOGL MSFT META ORCL Huang's pred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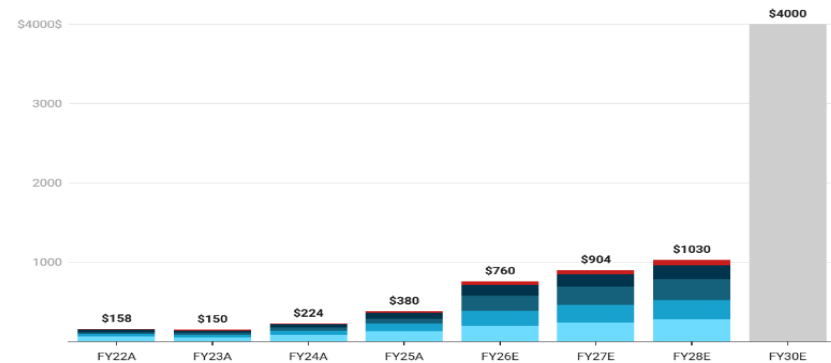


Chart: Ananya Chetia / CNBC - Source: Company documents, Needham & Co, FactSet consensus.

* 자료 : CN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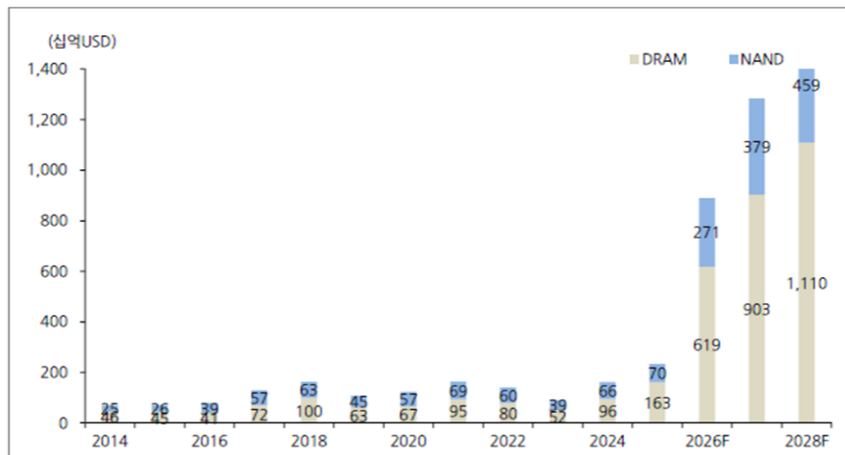
KOSPI Earnings & Valuation

27,28년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 예상. 그러면 KOSPI 영업이익 1천조원 가시성 높음.

- 2027년 반도체 영업이익 700~800조원 가시성 점차 높아지고 있음.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 부족율은 26년 8%, 27년 13%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7, 28년 영업이익 1천조원 달성 가능하다면 ROE 17~20% 가능하며, 반도체 장기공급 계약에 대한 가치 반영은 아직 미흡함. 따라서 이익의 지속 가능성은 AI AGENT 확산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 될 것
- PBR 1X = KOSPI 4,000 으로 가정하면 ROE 17~20% 지속되면 PBR 최소 2~2.5 수준이 적정 KOSPI로 볼 수 있음.
- 반도체 이외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 후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형주는 중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추천.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 연 \$1조 시장 유지 전망(한국 70%점유 예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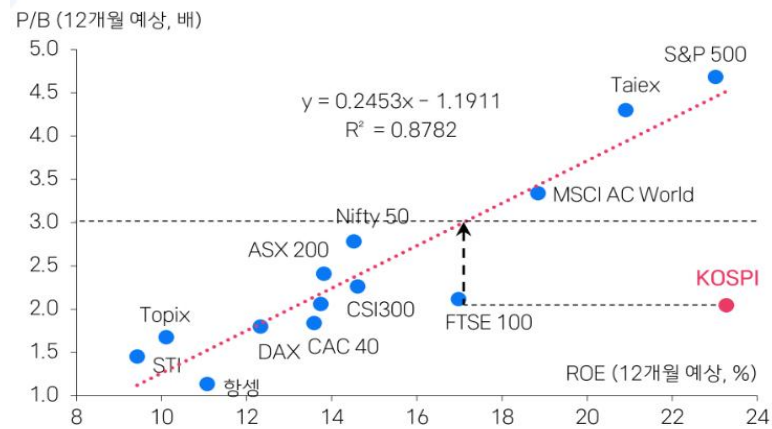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TrendForce

*자료: 현대차 증권

KOSPI Roe 17% 이상이면 PBR 2배 이상 적용 가능

글로벌 증시 ROE와 P/B (12개월 예상)



참고: 6월 19일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금리전망

■ 글로벌: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의 정상화 여부 중요. 통화 긴축 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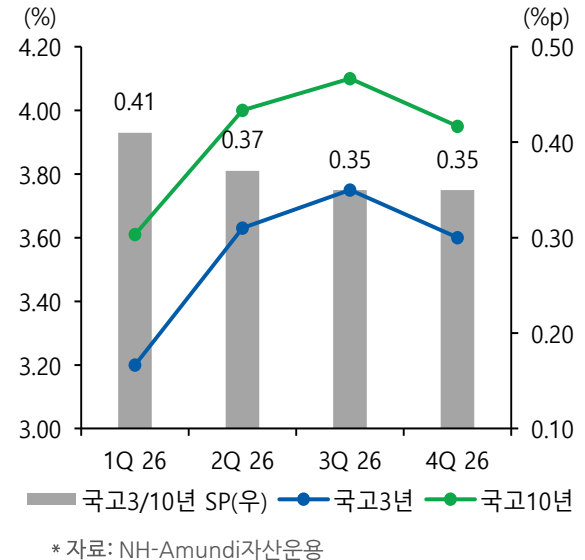
- 상반기 중동전쟁 지속으로 고유가 우려 부각→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강화

■ 미국: 하반기 인플레이션 안정 여부가 중요. 매파적 금리 동결 전망

- 美 경기는 고용·소비 약화에도 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한 성장 예상
- 유가 안정에도 근원 물가·기대인플레 안정 확인 전까지 Fed의 매파적 동결 지속 전망

■ 한국: IT 수출·확장재정이 성장 하방을 방어. 한은 기준금리 2회 인상 전망

- 유가 상승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확장재정에 힘입어 내수 회복 지속. 올해 성장률, 물가상승률 각각 2.8%, 2.7% 전망
- 내수 회복發 수요측 물가압력과 금융안정 우려로 연내 2회 금리 인상 전망
- 국고채 금리는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 물가 고점 및 인상 개시 이후 하향 안정 가능성 우위



구분	Market Driver	GDP	CPI	기준금리	국고3년	국고10년	커브
1분기	고유가 發 인플레이션 경계와 경기 하방 우려 혼재			2.50%	3.20%	3.61%	Steep
2분기(E)	전쟁 장기화로 물가 우려 재부각, 주요국 중앙은행 매파 기조 강화	2.8%	2.7%	2.50%	3.63%	4.00%	Flat
3분기(E)	반도체 수출 호조 속 공급·수요측 물가 압력 부각,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개시			2.75%	3.75%	4.10%	Neutral
4분기(E)	물가 피크아웃 및 에너지 가격 안정 여부,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와 금리 안정 여부			3.00%	3.60%	3.95%	Neutral

* Note: GDP 및 CPI는 전년대비 기준, 기준금리는 기말치, 국고3년 및 10년 금리는 평균치 기준

* 자료 : NH-Amundi자산운용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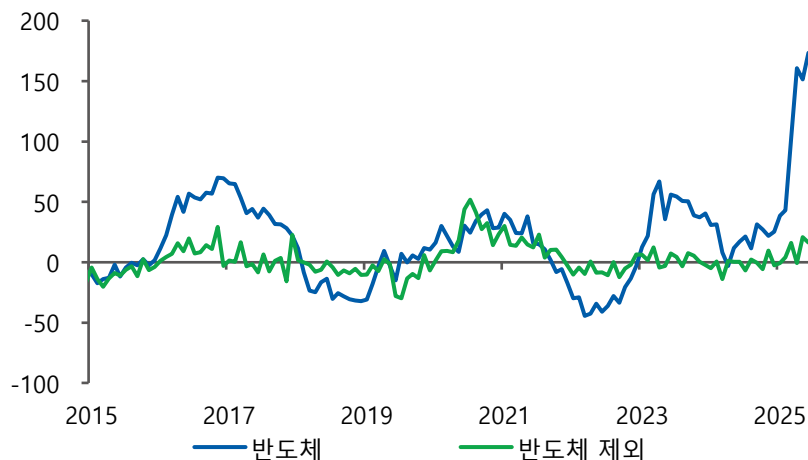
韓 1Q 성장률 상향 후 4~5월 수출도 양호. 올해 2.8% 성장률 전망

■ 1Q 성장률 상향 후 4~5월 수출도 양호. 올해 2.8% 성장률 전망

- 최근 4~5월 수출 호조와 1Q GDP 성장률 잠정치의 상향 조정(QoQ +1.7%→ +1.8%) 등 고려하여 올해 韓 2.8% 성장 전망
- 5월 수출, YoY +53.2% 증가하여 월간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반도체 수출도 YoY +169.4% 증가해 월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 민간소비는 전쟁 직후 고유가 부담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었으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5월 이후 회복세. 하반기 금리 인상 부담은 하방 리스크이나, 연간 기준 소비 회복세('25년 +1.5%, '26년 +2.0% 전후 예상) 전망
-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장기 투자 방안과 확장재정 기조 등을 고려 시, 재정지출도 올해·내년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

한국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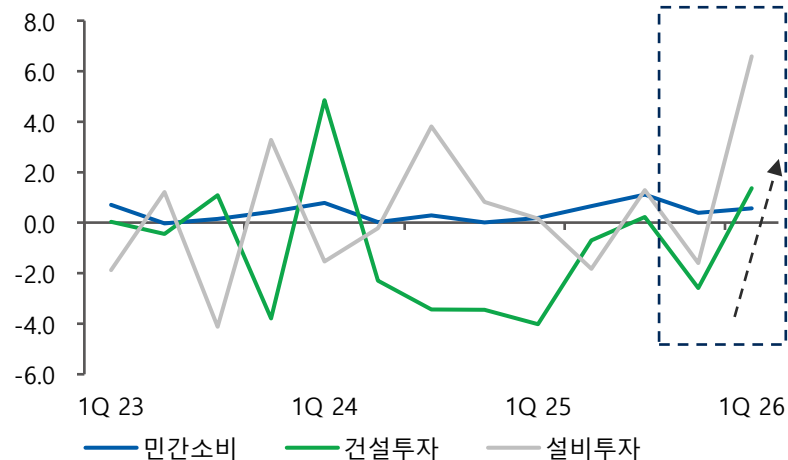
(전년대비, %)



* 자료 : 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연결

(전기대비, %)



* 자료 : 한국은행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art 3. 2026년 하반기 주요 테마 분석



3. 2026년 하반기 주요 테마 분석 요약

- 1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 요인 짚어 보기
미국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AI관련 지출 영향으로 현재 상승 추세
주식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우량주, 채권은 듀레이션 축소로 변동성 위험 해지

미국 중간선거와 신성장 정책 수혜
양당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제조업·금융·에너지·헬스케어 등 업종별 수혜 차별화
AI 인프라·반도체·핵심광물·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중장기 투자 확대 기대

2

- 3 2026년 하반기에도 주목할 BIG 이벤트, 미래 신성장 산업 IPO
미국 IPO 와 M&A에 대한 관심 증가 ... AI, 원자력, 방산 등
중국 IPO 시장의 블루칩 RED-TECH 상장 모멘텀 확대

미국 바이오의 관심확대, FDA 모멘텀 효과
대형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인수 활동 지속
글로벌 바이오텍 60% + 빅파마 30% 투자하는, BGIB 인덱스

4

- 5 미국 차세대 AI, HBF와 CXL에서 답을 찾다
CPU · GPU · TPU · QPU - AI 연산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팅 구조 다변화
CXL · HBF - 연산 성능 향상에 따라 메모리 용량·대역폭·전력효율 및 연결성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

AI 인프라 2막: 전력과 냉각의 시대를 고려하다
2028년 이후, 하이퍼스케일러는 냉각, 전력설비 등의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구
향후 병목은 GPU에서 전력망, 냉각으로 이동

6

- 7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화 ETF의 출현
미국의 Auto-callable Income TRS란?
매주 스왑(TRS)계약을 통해 52개 이상의 오토콜러블을 편입하는, 미국 CAIE ETF

AI시대 미래투자의 시작... 우리가 해본다
해외는 HSBC, 크래프트 등이 AI 자산관리 시대를 준비, 국내에서도 주식형 ETF와 변액펀드 등에서 AI알고리즘 활용 사례 증가
AI 포트폴리오 기반 구조화 DLB 설계 방법론 소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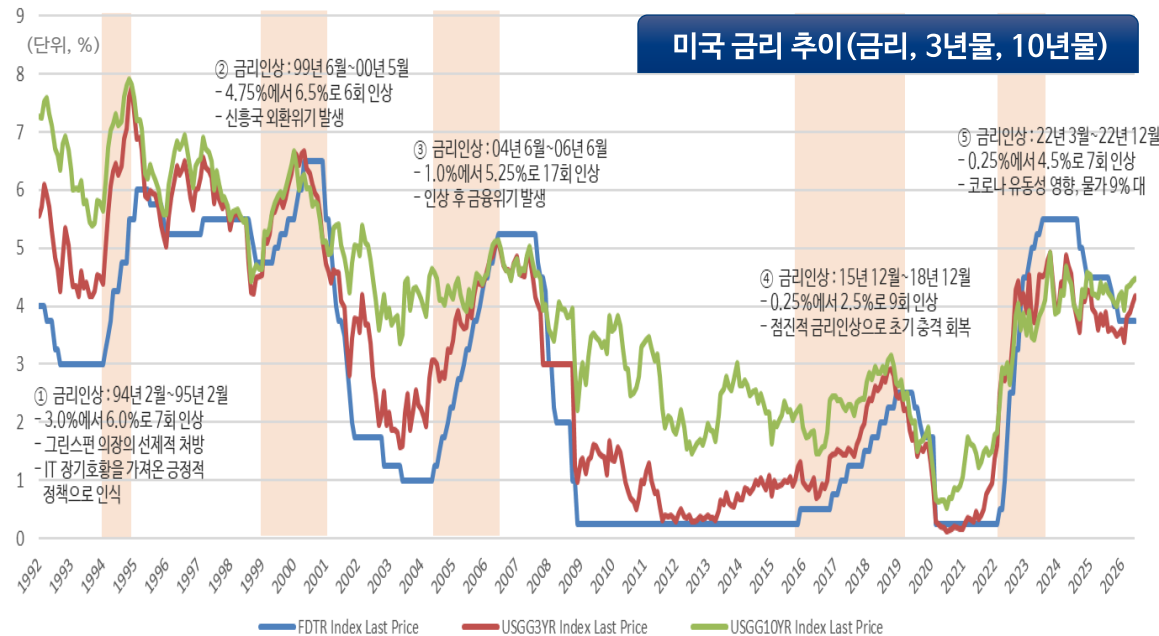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1.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 요인 짚어 보기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이슈 등이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동성 요인

- (금리) 소비지표, GDP, 실업률 등 경제지표에 따라 각 연준은 금리인상 등 다양한 통화정책 검토
- (물가) 미국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AI관련 지출 영향으로 현재 상승 추세
→ 2026.07.30일 케빈 워시 의장(인플레이션 2% 사수 의지 표명)
-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과 미 중간선거 불확실성, AI 의구심 등이 높은 물가 부담과 연결될 경우
→ 주식 및 채권 등의 디레버레이징 가능성 확대
- (자산배분 필요성) 주식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우량주, 채권은 듀레이션 축소로 변동성 위험 헤지
 - (주식) AI 빅테크, 금융, 헬스케어, 퀄리티, 지역은 미국, 중국(레드 테크) 등
 - (채권) 헛지펀드(듀레이션), 인컴펀드, 물가연동채권, 단기채권, 구조화채권 등
 - (기타) 글로벌 자산배분, 타겟리스크, 커버드콜, 오토콜러블, 버퍼드, 원자재(금), 인프라 등



* 자료 :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2026.07.27 기준, 관찰기간 1992.01.01~2026.06.30

케빈 워시(2026) vs 앨런 그린스펀(1994) 연준 금리정책 비교	
케빈 워시(2026)	앨런 그린스펀(1994)
경제환경 - 코로나 이후 구조적 인플레이션 - 관세 및 지정학 리스크 - AI 투자 확대 - 노동시장 견조 - 경제성장 둔화 우려	경제환경 - 미국 경기 확장기 - IT 투자 증가 - 고용시장 강세 - 성장을 상생
물가 (CPI) - 목표: 2% - 실제: 약 3~4% 수준의 높은 물가 - 서비스 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 지속	물가 (CPI) - 약 2~3% - 당시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보다 신제책 대응이 목적
정책 공통점 - 물가안정 최우선 - 인준 신뢰성 유지 - 기대인플레이션 억제 - 성공한 금리인하 경계	정책 - 기준금리 약 3% → 6% - 빠르고 과감한 금리인상 - 인플레이션 선제 차단
결과(현재) - 기준금리 높은 수준 유지 - 물가 둔화 진행 - 경기침체는 아직 제한적 - 금융시장은 금리 방향을 예의주시	결과 - 채권시장 금락(Bond Market Massacre)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성장 지속 - 연준의 신뢰도 강화
두 의장의 공통점	
-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연준의 신뢰성 유지 - 필요하면 시장 충격을 감수하는 인축 - 기대인플레이션 억제 - 장기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운영	
차이점	
그린스펀(1994)	케빈 워시(2026)
선제적 금리인상	높은 물가 지속 속 금리 유지-인축
저물가 환경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환경
경기 과열 예방	인플레이션 재확산 방지
채권시장 충격	지정학-관세-AI 투자 등 복합 변수 대응

그린스펀은 경기 과열을 미리 막기 위해 인축했고,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높은 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자료: NH아문디자산운용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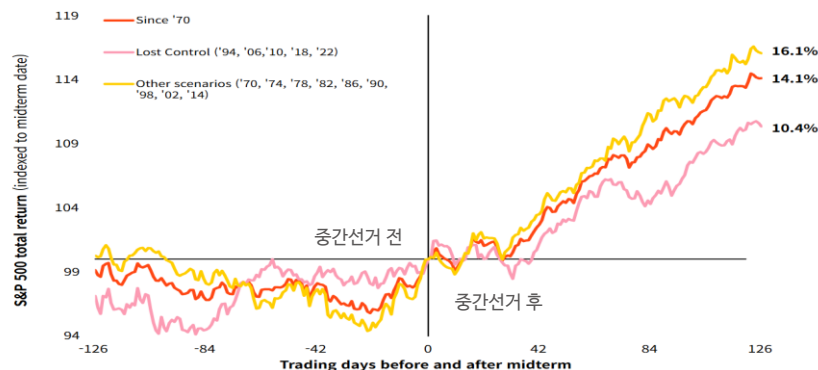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2. 미국 중간선거와 신성장 정책 수혜

▶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책 수혜 및 시장 영향 분석

- (중간선거) 양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업종별 수혜가 상이
 - (공화당) 미국 제조업 보호, 금융·전통에너지 규제 완화 추진
 - 산업재, 전통에너지, 금융 [캐터필러, 엑스모빌, 제이피모건 등]
 - (민주당) 의료 지출 보호,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센틴, 퍼스트솔라 등]
 - (공통) 에너지 및 국가 안보, 주택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 원전, 전력망, 방산, 주택·인프라 [오콜로, 팔란티어 등]
- (시장영향) 과거 중간선거 전에는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

중간 선거 전후 S&P 500 총 수익률 성과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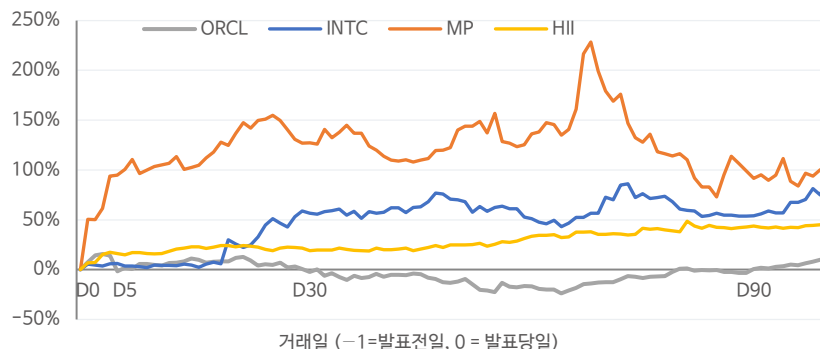
- 1970년 이후(since 1970) : 모든 중간선거 전후의 S&P500 평균 수익률을 의미
- 통제상실(Lost Control) :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상,하원 모두 혹은 한 곳)를 상실하는 경우 정치적 교착과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를 의미
- 기타 시나리오(other scenario) : 상기 두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점이 되거나 선거이후 기존 균형이 유지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의미

* 자료: BlackRock, NH-Amundi자산운용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트럼프 정부가 육성하는 미국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 (전략산업) 신성장 및 국가안보 산업에 대한 미국내 투자 확대
 - (AI 인프라, SMR) 데이터센터 확충과 신규 발전·전력망 투자를 연계
 - 아마존, 구글, 버티브, 오라클 / 오콜로, XE 등
 - (반도체·양자) 반도체 제조·메모리 및 양자컴퓨팅 생태계 육성
 - 인텔, 마이크론 / IBM, 아이온큐, 인플렉션 등
 - (희토류·핵심광물) 미국 내 채굴·정제·영구자석 공급망 구축
 - USA 레어어스, MP 머티리얼즈 등
 - (방산·조선) 무기수출과 해양산업 재건을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로 연결
 -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전략산업별 주요 정책 이벤트 이후 대표기업 추가 추이



구분	기업명	발표일	정책 이벤트
① AI 인프라	오라클 (ORCL)	2025-01-21	Stargate 프로젝트 발표
② 반도체	인텔 (INTC)	2025-08-22	미 정부의 인텔 지분투자 발표
③ 희토류·핵심광물	MP 머티리얼즈 (MP)	2025-07-10	미 국방부와 희토류 공급망 계약 발표
④ 방산·조선	헌팅턴 잉겔스 (HII)	2025-04-09	해양산업 재건 행정명령 발표

* 자료: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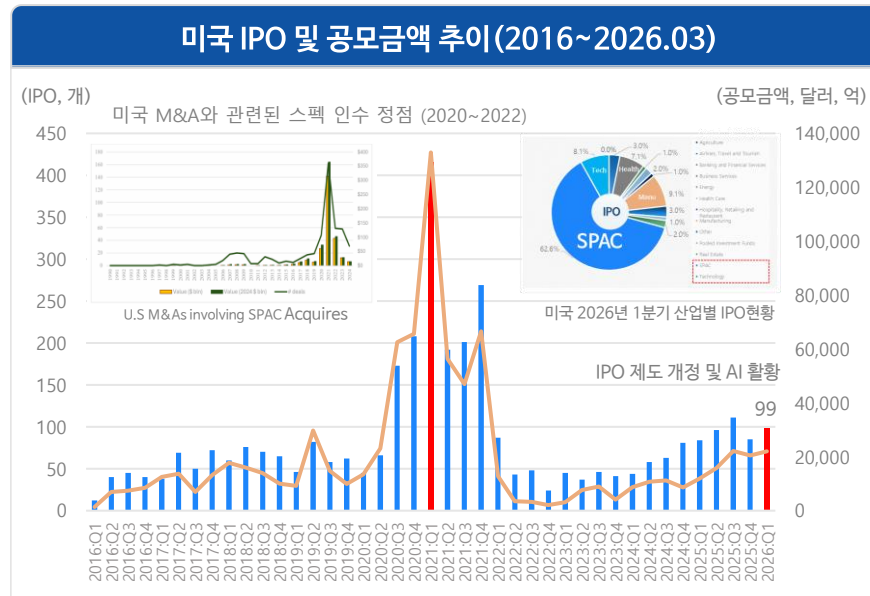
3-3. 2026년 하반기에도 주목할 BIG 이벤트, 미래 신성장 산업 IPO

▶ 미국 IPO 와 M&A에 대한 관심 증가 ... AI, 원자력, 방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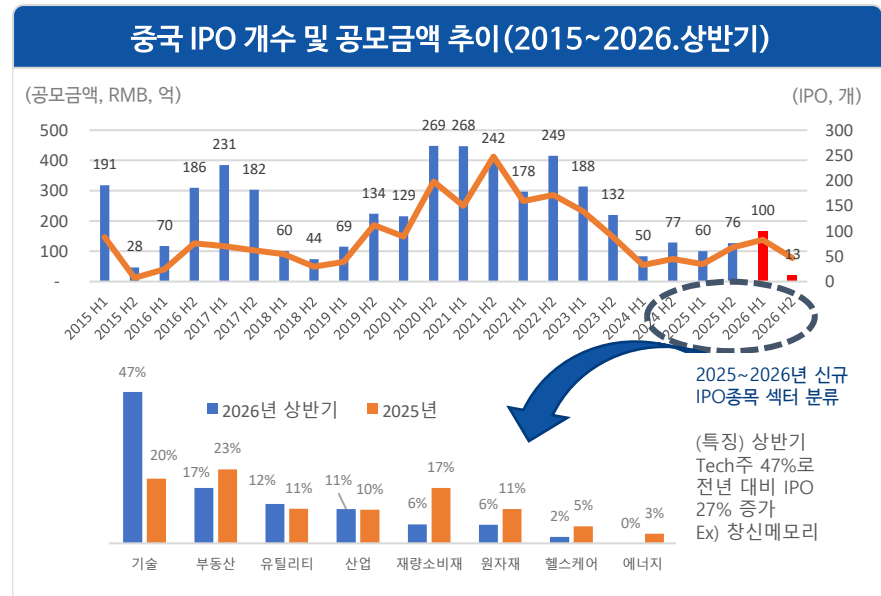
- (미국 IPO 예정 기업) 엔트로픽(AI), 안두릴(방산), 홀텍(원자력), OPEN AI(AI) 등 미국 핵심전략 기술기업들이 미국 거래소 상장을 추진
- (미국 발행시장 동향) 2026년 1분기 미국 신규상장 종목은 99개 기록
→ SPAC이 62.6%, 제조업 9.1%, Tech 8.1% 순으로 비중을 차지
전체 발행시장이 전통적 산업보다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재편
- (미국 SPAC 및 M&A시장 동향) 과거 2020~2022년 IPO 호황기와 유사하게, 2026년 1분기에는 AI, 양자컴퓨팅, 방산 등 차세대 혁신기술 기업과의 조기 합병(M&A)을 목표로 하는 SPAC 상장이 상당히 증가
→ 상반기 사례(인플렉션, 자나두 등) → 하반기 De-SPAC 본격화 예상

▶ 중국 IPO 시장의 블루칩 RED-TECH 상장 모멘텀 확대

- (중국 IPO 예정기업) 차세대 메모리, AI 인프라, 첨단 로봇틱스 등 국가 전략 기술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거래소 상장 예정
- (중국 발행시장 동향) 2026년 상반기 중국 신규상장 종목은 100개 기록
→ IPO 심사 기준 개선으로 상장건수 전년 상반기 대비 +40개 증가
또한, 2026년 기술기업 IPO 비중은 47%로 전년대비 27% 증가
- (RED-TECH IPO) 창신메모리의 성공적 상장 영향으로 하반기 추진
→ (AI반도체) 낸드 기업인 양쯔메모리, 엔플레임 등
→ (로봇틱스) 휴머노이드 및 AI 구동 시스템 제작기업인 유니트리
→ (기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센서타임, 양자기업 쿼텀테크 차이나 등



* 자료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PO Statistics
"Analysis of Merger & Acquisition Activity" JUNE 2025, NH-Amundi자산운용



* 자료: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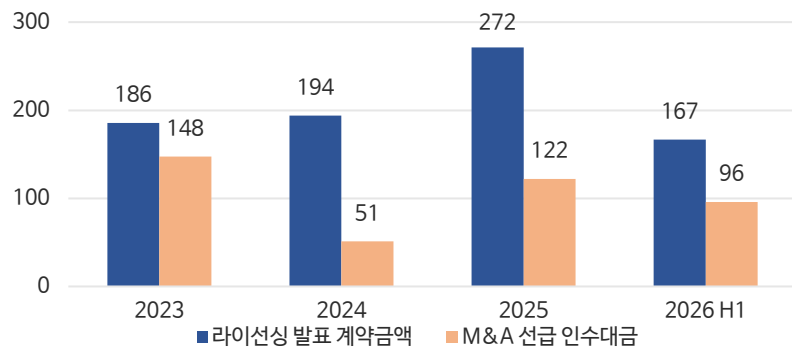
3-4. 미국 바이오의 관심확대, FDA 모멘텀 효과

▶ 빅파마의 특허절벽 대응, FDA에 대한 관심 확대

- (빅파마) 라이선싱 / M&A 활동 확대 지속 전망
 - 2030년까지 약 248조원 규모의 주요 의약품 **특허만료 예정**
 - 특허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빅파마의 외부 혁신 자산 확보 수요 확대
 - (라이선싱) 2026년 상반기 R&D 라이선싱 발표 계약 금액은 1,667억 달러로, 2025년 연간 사상 최대치의 절반을 이미 상회
- (M&A) **2026년 상반기 2개 분기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인수대금이 집행되며, 대형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인수 활동 지속**
 - (사례) Nuvalent(폐암치료), Rart(면역질환), Perfuse(안과신약) 등

글로벌 바이오파마 라이선싱·M&A 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빅파마 선호 인수대상 공통점

FDA 승인 직전(Phase 3), 혁신 플랫폼 보유, 희귀질환, 항암제, 방사선 의약품, 정밀진단, 비만 및 대사질환, AI 기반 신약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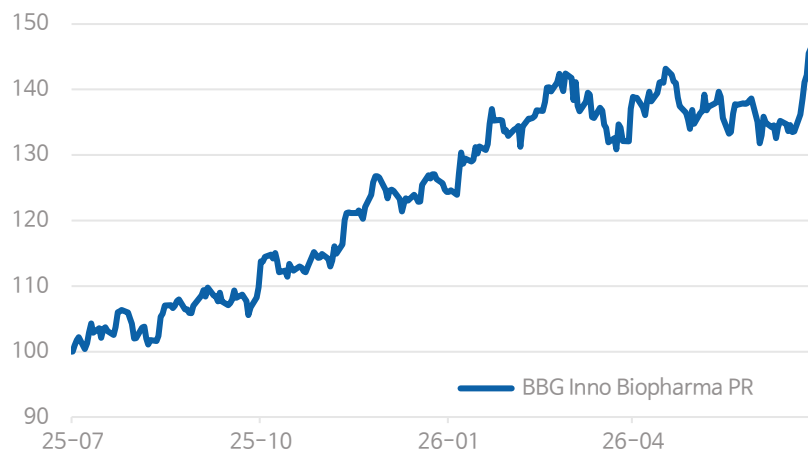
* 자료: JPMorgan, NH-Amundi자산운용

▶ 글로벌 바이오텍 60% + 빅파마 30% 투자하는, BGIB 인덱스

- (바이오파마 INDEX) 라이선싱 활동 기반 글로벌 바이오텍 + 빅파마 편입
 - (INDEX) 혁신 바이오기업의 신약 라이선싱 활동과 글로벌 대형 제약 기업의 성과를 추종하는 블룸버그 바이오파마 지수
 - (투자전략) **최근 24개월간의 신약 라이선싱 건을 임상 단계별로 점수화** 하여 상위 바이오텍 20개사를 선정하고, 유동시가총액 상위 대형 제약사 10개사를 함께 편입
 - (편입 비중) 글로벌 바이오텍 60% + 빅파마 30% 포트 구성
 - (주요 특징) 혁신 바이오기업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빅파마를 병행 편입하여 바이오텍 섹터의 높은 변동성을 보완

BGIBP 인덱스 성과추이 (2025.07~2026.07)

(기준일 = 100)



* 자료: Bloomberg, Bloomberg Global Innovative Biopharma Index(PR), NH-Amundi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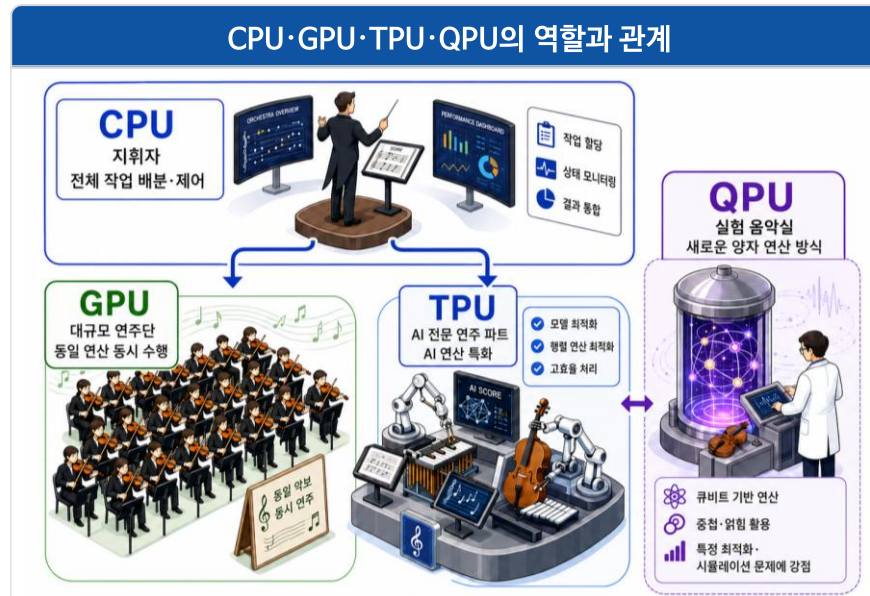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5. 미국 차세대 AI, HBF와 CXL에서 답을 찾다

▶ CPU · GPU · TPU · QPU - 차세대 연산 생태계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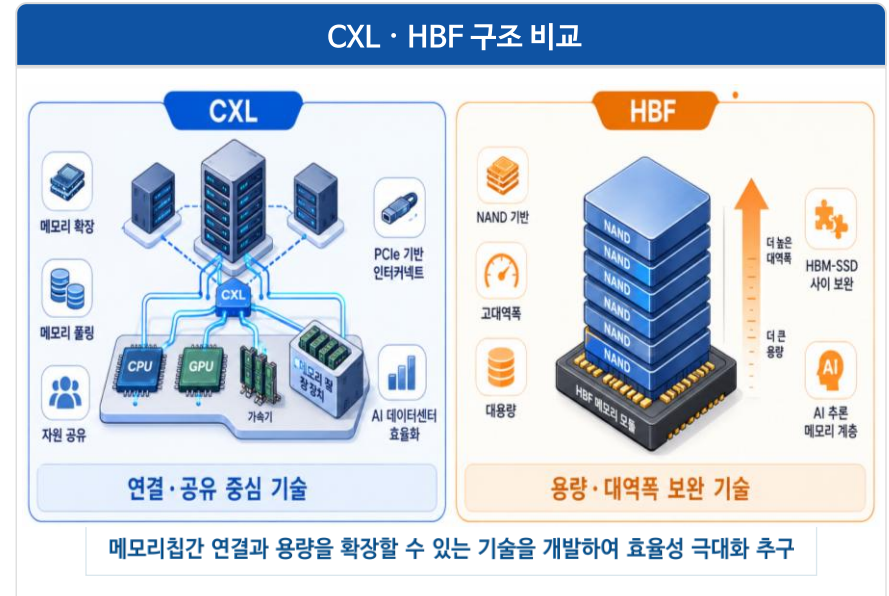
- (미국 차세대 컴퓨팅) 연산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팅 구조 다변화
 - 프로세서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CPU·GPU: CPU는 시스템 제어와 범용 연산, GPU는 대규모 병렬 연산
 - CPU: Intel, AMD / GPU: NVIDIA
 - TPU(맞춤형 AI 가속기):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행렬 연산을 효율화
 - Alphabet, Broadcom, Cerebras
 - QPU: 새로운 양자 계산 방식 제공하여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
 - QPU: IBM, IonQ, Inflektion
- (하이퍼스케일러의 다변화 니즈 확대) 비용 효율화, GPU 독점 탈피 목적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CXL · HBF - 차세대 메모리 생태계 확장

- (AI) 메모리 용량·대역폭 및 전력 효율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
 - CXL: CPU·GPU·가속기·메모리를 PCIe 물리계층 기반으로 연결하여, 메모리의 연결·공유 효율을 높이는 개방형 인터 커넥트 표준
 - AMD, ARM,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병목을 푸는 핵심 기술로 부상
 - Astera Labs, Marvell Technology, Broadcom 등
 - HBF: 낸드플래시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하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 기술
 - 2026년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OCP 산하 공동 워크 스트림 구성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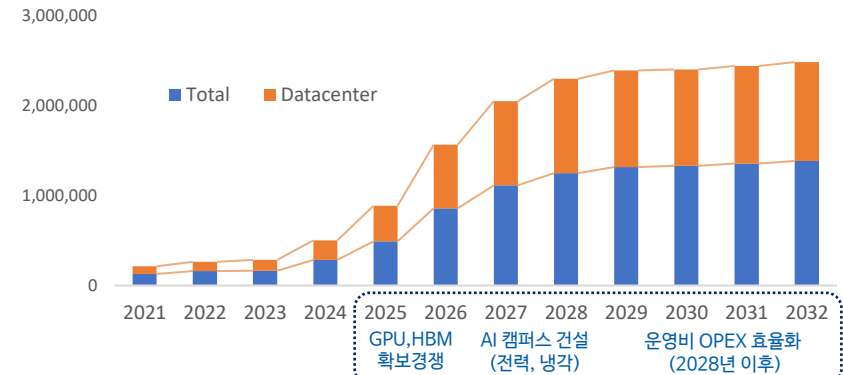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6. AI 인프라 2막: 전력과 냉각의 시대를 고려하다

▶ AI 인프라, Build-out에서 Optimization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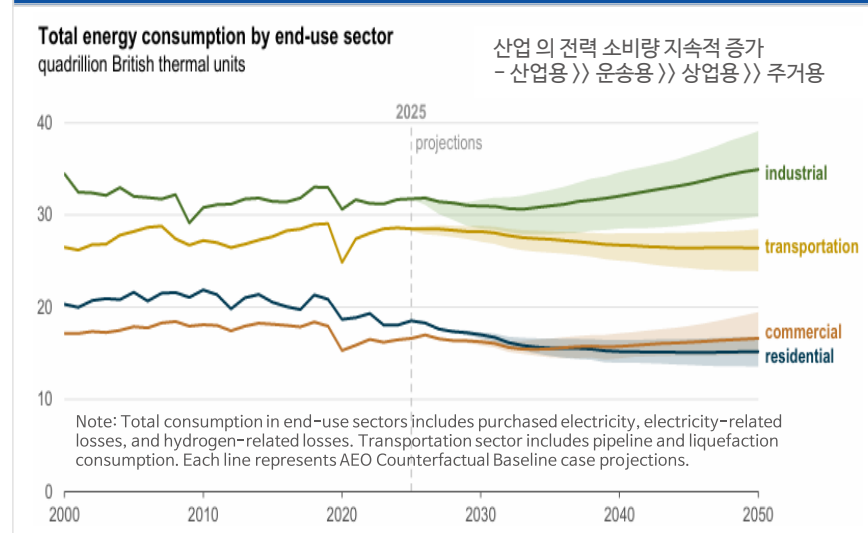
- (AI 인프라 환경 효율화) AI 인프라 1차 대규모 구축시점 2028년 예상
 - 2025~2028년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사이클로 볼 경우,
 - 2028년 이후, 하이퍼스케일러는 냉각, 전력설비 등의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구 >> 향후 병목은 GPU에서 전력망, 냉각으로 이동
 - (수혜영역) 전력망, 변압기, UPS, 액체냉각, 전력효율, 운용SW 등
- (미국 산업별 전력소비량) 미국 에너지청 DOE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3년 176Twh에서 2028년 580Twh까지 증가 전망
- (AI기업의 전력 확보 전략)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AI 기업은 SMR기업과 개발 협력 및 전력생산기업 등과 장기공급계약(LTA) 체결

▶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용 CAPEX 예측 (~20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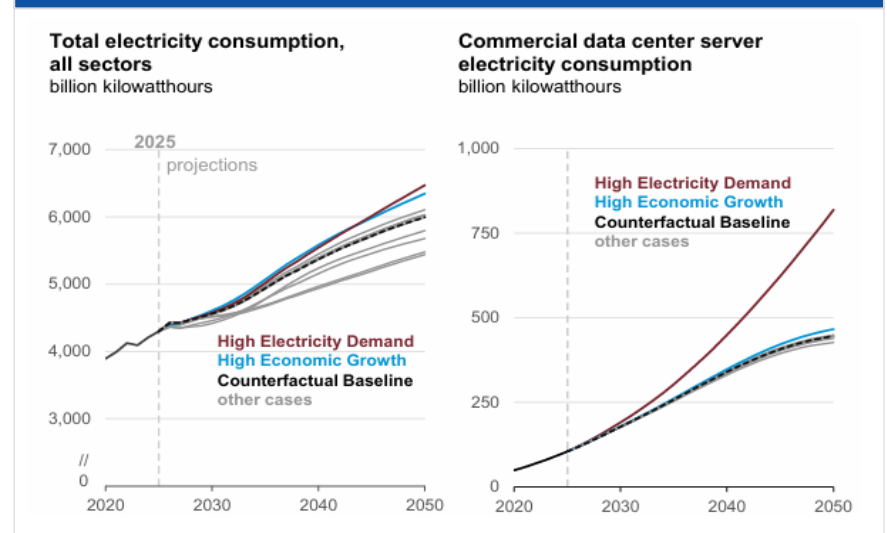
* 자료: Bloomberg, NH아문디자산운용

미국 산업별 전력소비량 예측(2000~2050년)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Outlook 2026, April 2026

미국 데이터센터 서버용 전력 소비량 예측 (~2050년), 그림(우)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Outlook 2026, April 2026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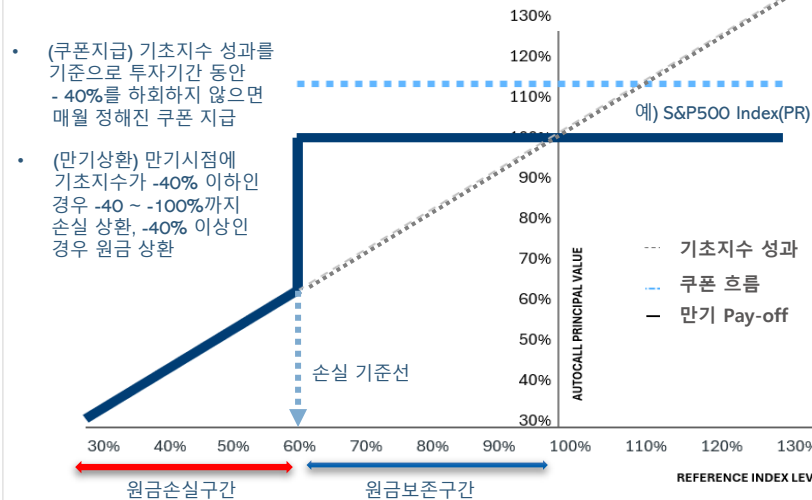
3-7.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화 ETF의 출현

▶ 미국의 Auto-callable Income TRS란 ?

- (개발목적) 기초지수의 MDD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컴 구조로 설계
- (기초자산) S&P500, Nasdaq 100 등 대표 주가지수
- (만기) TRS의 기본 계약 만기는 보통 5년으로 설계 (자동갱신)
- (조기상환: Auto-call) 매월 또는 매분기 평가일에 일정 수준 유지시에 만기 전에 조기 상환되어 원금과 약정 쿠폰을 지급
- (배리어) 국내 ELS와 유사한 메커니즘 적용
 - 쿠폰 배리어: 기초자산은 -30~-40% 이상인 경우 쿠폰 정상 지급
 - 만기 배리어: 5년 만기시점 하락폭이 배리어 이상인 경우 원금 상환

CAGE ETF는 밀린 쿠폰을 한번에 주는 메모리기능 보유

미국 Auto-callable TRS 구조 예시 (기초자산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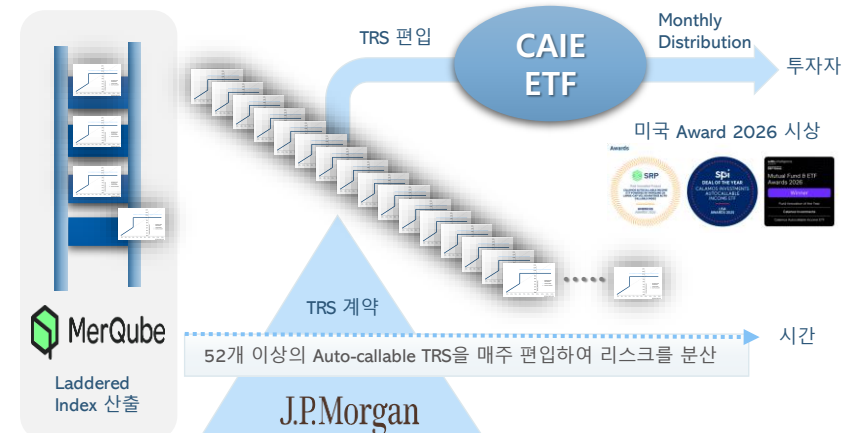


* 자료: Calamos investments, NH-Amundi자산운용, 2026.07.23 기준

▶ 미국 CAIE ETF의 구조는 어떤가요?

- (명칭) Calamos Auto-callable Income ETF
- (운용) Calamos가 세계 최초로 Auto-callable 인컴형 ETF 출시
- (BM) MerQube US Large Cap Vol Advantage Auto-callable Index(TR)
- (구조) 매주 스왑(TRS)계약을 통해 52개 이상의 오토콜러블 편입
- (특징) 52개 이상 편입을 통한 사다리형 리스크 분산 및 하방 보호를 추구
- (자산구성) Tax aware ETF(79.6%), T-bill(13.6%), TRS(7.0%) 등
- (월분배금) TRS를 통해 모인 쿠폰 수익을 ETF에서 매월 투자자에게 분배
- (상장) 뉴욕거래소 2025년 6월 25일
- (AUM) 1.1bn 2026.07.30 기준

CAIE ETF 투자전략 및 구조 분석



* ETF 벤치마크 : MerQube US Large Cap Vol Advantage Auto-callable Index(TR)

* 자료: Calamos investments, NH-Amundi자산운용, 2026.07.23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8. AI시대 미래투자의 시작... 우리가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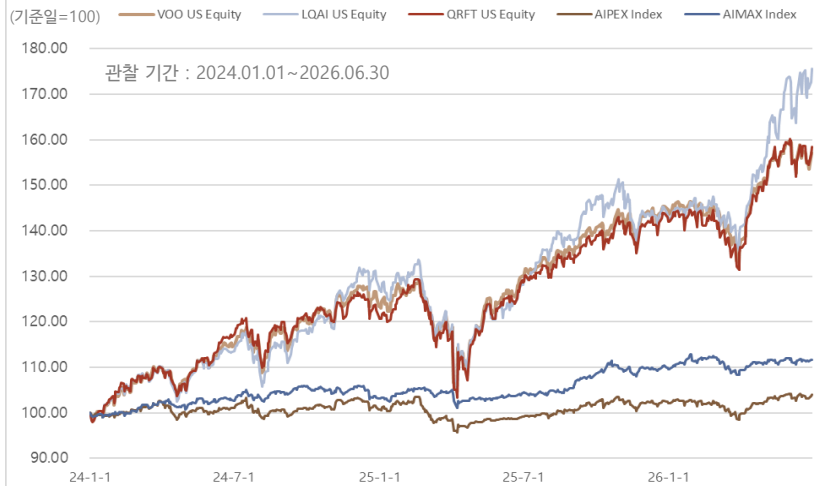
▶ 미국은 3년 전부터, 한국은 2년 전부터 AI시대를 준비하다.

- (해외) HSBC, LG AI리서치, 크래프트 등이 AI 자산관리 시대를 준비
 - (펀드) HSBC는 IBM 왓슨을 활용 → AIPEX, AIMAX 펀드를 운용
 - (ETF) LG AI리서치와 크래프트 → 미국에 AI ETF를 상장하여 운용
- (한국) 국내주식형 ETF와 변액펀드 등에서 AI알고리즘 활용 사례 증가
 -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AI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해 매매시점과 편입종목을 결정하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출시
 - (보험) 미래에셋생명도 AI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장방향성과, 주식 채권, 대안자산 등의 최적 편입비중을 산출하여 매달 자동 조정
- (OPEN AI) AI 개인자산관리기업 Roi를 인수 →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 AI 포트폴리오로 구조화 DLB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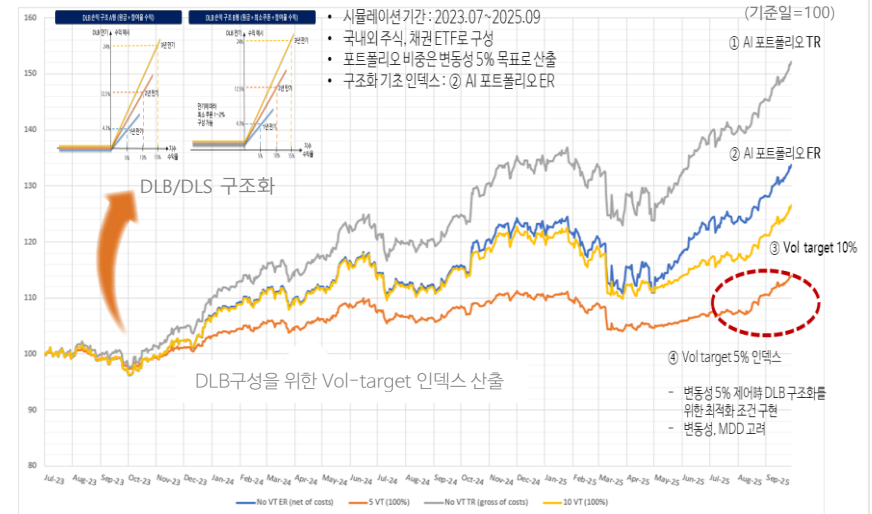
- ① AI 포트폴리오 구성: AI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지수
- ② ER 인덱스 산출 (Excess Return): AI 포트폴리오를 ER인덱스로 구현
 - 무위험이자를 제외하고 비용만 반영한 순수자산 성과지수
 - ER인덱스는 기존 펀드 or 펀드내 포트폴리오로도 구현 가능
- ③ Vol-target index 구현: 변동성 관리 메커니즘이 변동성을 관리
 - 정해진 변동성에 맞추어 포트폴리오 노출도를 조정하여 인덱스를 산출
- ④ 구조화채권 설계: Vol-target 인덱스를 기초로 다양한 DLB 조건 설계
 - 국내외 증권사와 구조화 DLB 설계 가능 여부 협의 및 발행 가능성 검토
 - 만기(1년, 2년, 3년), 상승참여율, 쿠폰조건(기초자산 성과 * 참여율)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상품별 성과추이



* 자료: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2026.07.27 기준

AI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Vol-target Index 구조화 설계 방법론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상품전략팀 AI ER인덱스 방법론을 통한 구조화 연구, 2026.01월 기준

주1)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2)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시장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NH-Amundi자산운용(주)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매매 및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상품전략본부	본부장	이진영	02-368-3692	jinyoung.lee@nh-amundi.com
	팀장	김형락	02-368-3672	hyunlark.kim@nh-amundi.com
상품전략팀	대리	고경림	02-368-3671	kyungrim.go@nh-amundi.com
	대리	강병우	02-368-3784	byeongwoo.kang@nh-amundi.com